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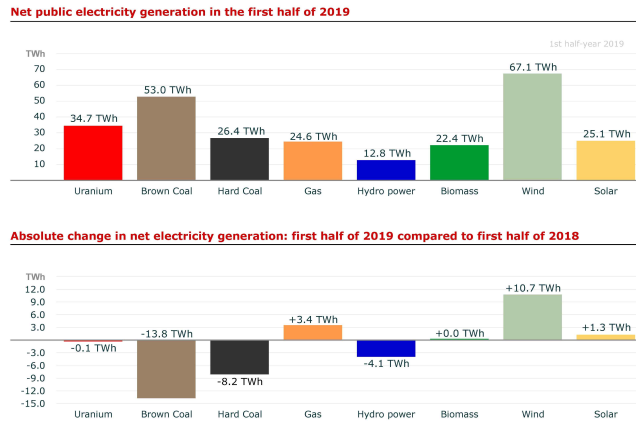


그림 4. 2019년도 상반기 독일 순발전량 구성 차트(상)와 2018년도 상반기 대비 2019년도 상반기 순발전량 구성 증감량 비교 차트. 갈탄과 무연탄발전량의 감소와 풍력, 가스, 태양광 발전량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음

○ 시사점

- 일사량이 적은 편인 독일에서(한국보다 평균적으로 약 30% 가량 낮음) 태양광이 최대 발전원이 되었다는 점은 독일에서 매우 의미있는 기록임.
- 2022년 원전 제로를 앞둔 독일은 성공적인 에너지효율화 정책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목표치(2020년 재생에너지 전력비중 35%)를 초과달성하고 있음.
-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비싸던 2000년대 초기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발전원이 시장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최근 유럽 전역에서 탄소세를 비롯한 탄소발전원에 대한 추가 비용부담 움직임이 석탄발전량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.
- 낮시간대 전력소비를 담당하는 태양광발전원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북해 해상풍력발전 본격 개발로(풍력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, 2018년 기준 20.4%) 재생에너지발전원이 기존 발전원을 대체해 나가면서 올 초에 일명 탈석탄위원회가 권고한 2038년 석탄발전 제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.

*원문 기사 링크

[“Solar was biggest source of electricity in Germany in June”](#)

[“Solar PV single largest source of Germany’s net power production in June”](#)